

생추어리에서 만난 동물과 사람들... 아름다운 돌봄과 존중

<동물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보금자리>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동물의 자리

김다은·정윤영 지음

책 부제부터 눈길을 끈다. 아니 강렬하다. '먹이지 않고 늙어가는 동물들을 만나다.'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어서 다소 거부감도 드는 게 사실이다.

세상에는 많은 동물이 있다. 그러나 법박하게 말한다면 두 부류의 동물만 존재할 뿐이다. 인간에게 도살돼 식탁의 고기로 오르는 쪽과 수명을 마치고 자연사하는 쪽이 그것이다.

'생추어리'(sanctuary)라는 농장이 있다. 이곳은 지난 1986년 미국 동물보호 운동가 진 바우어가 동료들과 '가족수용소' 인근 사체 처리장에서 '힐다'라는 이름의 양을 구조하고 만들었다. 양은 이후 1997년 자연사했으며 묘비에는 "영원히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친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진 바우어는 생추어리 농장에 대해 "동물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또한 그것은 학대를 견디고 온정이 피어난다는 의미에서 '완성의 장소'라고도 불렀다.

우리나라에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민



간이 주도가 돼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있다. 생추어리라는 용어로는 부르지 않는다.

동물들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보금자리, 즉 생추어리가 부상하고 있다. 생추어리를 매개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새롭게 들여다본 '동물의 자리'는 이색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책이다. '혼밥생활자의 책상'의 저자 김다은 '시시H' 기자와 '기억의 공간'에서 너를 그린다는 저자 정윤영 르브르작가가 공동 집필자로 참여했다. 사진은 '시시H' 사진팀 신선영 기자가 촬영했다.

한국의 첫 생추어리는 언제 등장했을까. 저자들은 지난 2019년 DxE(Direct Actions Everywhere)가 종돈장에서 구조한 돼지 새끼와 함께 시작했다고 본다. 현재 한국에는 모두 5개의 생추어리가 있다. '새벽이생추어리', '인제 꽃풀소 달뜨는 보금자리', '화천 곰 보금자리', '제주 꽃자왈 말 보호센터', '카라의 미니팜 생추어리'가 그것이다. 책에는 '카라의 미니팜 생추어리'를 제외한 4곳의 현장 취재 결과물이 실려 있다.

인제 꽃풀소 달뜨는 보금자리는 일명 동물해방물결이라 불리는 '동해물'이 운영하는 생추어리다. 소 15명(命·동물 세는 단위인 '마리'를 대체해 '목숨 명(命)'을 쓴다)을 데려오기 위해 직접 농장주에게 구입했다. SNS 보급 등을 통해 4600만 원을 모았지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인제의 소 농장에 맡겨졌지만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다. 최대 6명만 수용이 가능한 탓에 나머지는 처분 기일에 맞춰 도축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활

동가들은 별 수 없이 살아남은 소들에게 머위, 메밀, 미나리, 창포, 영이, 부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들꽃과 들풀에서 이름을 따온 것은 강인하게 살아 남으라는 뜻에서였다.

폐교를 활용해 보금자리를 짓는 중에 미나리가 죽고 5명이 살아남았다. 소들이 이사오는 날 활동가들과 마을주민들은 긴장과 설렘 속에 이를 지켜보았다.

제주 야생숲 꽃자왈은 화산이 분출할 때 만들어진 용암지대다. 꽃은 나무숲을, 자왈은 자갈이라는 의미다. 크고 작은 바위가 많아 사람이 살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다양한 생물이 산다. 이곳은 40여 마리 말들이 자유롭게 산다. 안장도, 굴레도 없으며 말들은 누워서 잠을 잔다.

말 생추어리는 프로콜퍼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온 김남훈 대표가 운영한다. 그는 2년 간 포크레인과 트랙터 운전하는 법을 배워 자갈과 가시덤불을 초원으로 개조했다. 습성이나 성향이 각기 다른 말들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퇴역한 경주마들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정형행동'(공공이)으로 표현하는데 쇠붙이를 잡아당기거나 사람에게 발길질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말들과 지낼수록 "알이 사랑이 되려면 그건 서로돌봄과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저자 김다은은 "생추어리는 동물을 '보호'하는 곳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손상된 동물의 삶을 어떤 식으로 회복시킬지, 얼마나 되돌려줄 수 있을지를 우리 사회를 향해 묻는다"고 강조한다.

<들고래·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메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젖소에게 빗질을 해주는 어린이와 '메밀'과 '머위'라는 이름을 가진 젖소들. <들고래 제공>

논어는 아름답다

김경희·진은영 지음

자본주의가 발달한 오늘날 사회는 모든 것이 계수화되고 값으로 환산된다. 상품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오늘날처럼 강고하게 시장의 논리가 작동하지는 않았다. 시장의 논리는 점점 공물체의 가치보다 우선시되고 개인의 삶까지 예측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고전의 변함없는 가치 가운데 '사랑'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책이 발견됐다.



논어를 매개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담은 '논어는 아름답다'가 그것. 책의 저자는 김경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진은영 조선대 교수가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논어에서 배우는 삶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힘'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사랑의 공적 능력을 매개로 주장을 펼쳐나간다.

'논어' 외에 또 다른 고전인 '맹자'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온다. 맹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의 사랑과 정의가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익을 규제하는 어떤 원리나 법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들은 자본주의 삶과 맞서기 위해서는 예술작품의 관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즉 삶은 상품이 아닌 '예술작품'이라는 사유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예술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에 매매되는 현실을 도외시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즉 예술에는 선물과 같은 성격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전하면 즐겁고 카타르시스적인 감정의 울림을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물처럼 순환하는 예술과 배움을 매개로 함께 생각을 나누는 공적인 기능을 함양하는 한다는 견해다.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자질은 바로 사랑의 공적 능력며, 그것이 바로 공공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서해문집·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수메르 우화

알와츠 우랄 지음, 에르도안 오울테킨 그림, 이희수·전선영 옮김

동물이나 식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풍자와 교훈을 전하는 이야기를 우화(寓話)라고 한다. 2500년 전 이집트인 '이솝 우화'는 구전설화 시대의 초기 우화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우화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솝 우화보다 천년이나 더 오래된 우화가 있다는 걸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4000년 전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우화, 수메르 우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발견됐다. '수메르 우화'는 튀르키예 아동문학의 권위자 알와츠 우랄이 원전에 충실하면서도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재구성한 46편의 이야기를 감각적인 그림과 함께 엮은 책이다. 저자는 4000년 전 유물인 수메르 점토판을 꼼꼼히 연구한 다음 그 속에서 오만한 여우, 집도 못 찾고 신뢰할 수 없는 개, 이기적인 늑대와 숫양, 피 많은 염소 등 다채로운 60여 마리의 동물들을 찾아냈다.

책에 수록된 몇몇 우화들은 이솝 우화와 흡사하다. '오룩스의 뿔을 가진 여우'는 이솝우화의 '생쥐와 족제비'와 비슷하고, '당나귀와 들개'는 '전갈과 개구리'와 유사하다. 저자는 바빌론에 점토판을 보관하는 대규모 도서관이 존재했다는 점을 들어 바빌론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던 이솝이 수메르 필경사들이 남긴 점토판을 읽고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수메르 우화'는 간략한 요약과 교훈으로 이뤄진 이솝 우화의 딱딱한 방식을 벗어나 재미있는 시적 산문 방식으로 우화를 풀어내고 이야기에 깃든 교훈도 스스로 찾을 것을 권한다. 일러스트레이터 에르도안 오울테킨은 각각의 우화마다 수메르 조형물 속 동물의 이미지를 일러스트로 되살린 성인은 물론 어린이들도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위즈덤하우스·1만9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왜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는가

존 J. 미어샤이머 등 지음, 김용환 옮김

건국 이념이 자유와 평등인 나라 '미국'은 왜 이스라엘 편에 설까. 합리적 판단 여부를 떠나 미국계 유대인, 친이스라엘 집단은 미국 내 결정권자들을 자신의 의중대로 움직이게 만든다. 이들은 '로비'를 토대로 미-이스라엘 관계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전략적 이익을 취한다.



로비의 영향력은 이스라엘의 수 차례에 걸친 중동 전쟁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1948년 건국전쟁부터 1956년 수에즈 전쟁, 1967년 6일 전쟁을 비롯해 현재 레바논-하마스 전쟁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경제와 군사 물자를 원조했다. 이는 중동의 골리앗 이스라엘이 로비를 통해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다.

최근 출간된 '왜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는가'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로비의 영향력이 미국에 미치는 부자유와 악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코넬대 정치학 박사를 받은 뒤 시카고대 정치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존 J. 미어샤이머, 하버드대 존 F. 케네디 스쿨의 학술처장인 스티븐 M. 윌트가 함께 펴냈다.

저자들은 이스라엘이 전략적 자신인 미국의 부채인지, 이들을 원조하는 것이 도덕성을 넘어서 설득력을 지니는지 분석한다. 시리아와 이라크를 겨냥한 지원책, 대중담론을 지배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방법을 들여다본다.

감상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름의 결론을 제시한다. 국가 생존을 위해서라면 누구도 동맹을 만들어 세력 동맹을 유지해야 할지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화를 위시하는 기후위기, 핵무기 확산 문제 등 다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크레타·2만4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